

2022년 2월 10일 (목)

News

긴축시대 이글 韓銀 새 선장...대선 결과 따라 후보 갈린다

매일경제

청와대, 오는 3월 말 임기 만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자 검토 작업 착수... 한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최종후보자 1명 지정해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하는 절차
신임 총재 후보로 한은 출신, 국제기구 출신 인사, 외부 경제 전문가 등 10여 명이 물망에 올라... 인선이 늦어질 경우 이 부총재가 권한대행으로 내부 업무 가능성도...

카카오뱅크 "2월 중 주담대 출시...하반기엔 개인사업자대출"

뉴스1

카카오뱅크, 이달 중 주담대대출 상품 출시...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상 소호대출도 실시하겠다는 계획
윤호영 대표, "개인사업자에 대한 수신과 대출상품을 동시에 런칭해 기업금융 시장에 진출할 준비 중"... 올해 대출성장률 목표는 10%대 중후반으로 추정

국민은행, 메타버스 로블록스서 가상 영업점 시범 테스트

한국경제

국민은행, 메타버스인 로블록스에 설치된 가상 영업점 'KB금융타운 베타'의 시범 테스트했다고 밝혀... 사용자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복잡한 절차 없이 금융상품 가입하도록 계획
창구 직원이 비대면으로 고객과 대화하는 KB화상상담서비스와 연동 작업... 은행 앱이나 인증서 없이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브랜치도 점검

P2P 대출에 저신용자 몰린다...법 시행 반년만에 10배 성장

CEO스코어데일리

작년 6월 온투업법이 시행된 후 반년 만에 P2P 대출이 10배 가까이 성장... 정부의 시중은행 대출 총량 규제로 상대적으로 절차가 쉬운 P2P 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발생
P2P금융 누적 대출금액은 2조 8,364억원... 첫 사업 개시 당시 대비 반 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 업계는 자체 CSS 고도화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분쟁 항소심 첫 패소

조선비즈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항소심 패소... 다른 생보사들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 집중
분쟁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3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정도로 추산... 사측은 내용 검토 후 추후 방향 결정하겠다 언급

2월 첫 공모주 주자 '보험대리점' 인카금융 흥행 실패...부진 예견됐다

이코노미스트

대형 GA 인카금융서비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이어 공모 청약에서도 흥행 실패... 지난 8~9일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결과 경쟁률 25.29대 1에 그쳐...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최종 공모가 18,000원 확정, 경쟁률 13.69대 1 불과... 주식시장 열기 감소와 GA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위기의 코스피, 떠나는 동학개미... 증권사 '실적 파티' 끝나나

서울신문

중시 거래대금, 작년 1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줄줄이 경신한 증권사들이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업황 둔화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 교보증권, 소액주주 주당 500원, 최대주주 주당 100원으로 차등배당 실시

'사상 최대 실적'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3연임할까

e대한경제

증권업계, CEO들의 연임 잇따라 성공한 가운데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도 3연임 바통 이어갈지 이목 집중... 내달 중순경 최종 후보 선정 계획
다음달 1일 임기 만료... IB부문에서 선전했으나,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걸림돌될 가능성도 제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